

근로 환경의 변화



한 태 영 변호사의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내달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국민의 휴식 있는 삶'과 '일, 생활의 균형'의 실현을 모토로 주 최대 52시간근로 규정 및 특례업종 축소, 휴일근로 가산할증률 명확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의 민간 기업 적용 등을 담고 있어 근로 환경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단계별로 적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곧 시행될 부분도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변화된 근로환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장 및 휴일근로 포함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된다. 여기서 52시간은 휴일근로를 포함한 7일 기준 52시간으로서, 개정 전 법률이 12시간의 연장근로 및 휴일 당 8시간의 근로를 허용해 주당 최대 68시간을 허용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 규정은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돼 300인 이상 기업은 내달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단,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개정 전

근로시간 규정(최대 68시간 제한)이 적용되며, 2019년 7월 1일부터는 최대 52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또, 50인~300인 미만의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미만의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8시간 특별연장근로가 한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둘째,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단축된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에 관한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 현행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되며, 연장근로 한도도 주당 6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어든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셋째,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률이 명시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중복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입법적으로 제도화됐다. 즉,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로 평가되더라도, 연장근로 가산율에 휴일근로 가산율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가 된 것이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의 경우 50%의 할증률이, 8시간이 초과된 휴일근로는 초과된 범위에서 100%의 할증률이 가산된다. 이 규정은 올해 3월 20일부터 시행됐다.

넷째, 근로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의 범위가 종래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됐다. 이에 따라 제외된 21개 업종은 사업별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제

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1주당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을 받는다. 특례유지업종은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의업이다. 이 업종들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해 특례를 적용하기로 할 수 있다. 특례를 적용받기로 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해서 최소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다섯째,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이 민간 기업에도 적용된다. 기업규모별로 300인 이상의 기업은 2020년 1월 1일, 30인~30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1월 1일, 5인~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주당 근로시간 제한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한 노동환경의 변화는 매우 급격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특히, 형사책임을 통해 강제된다는 점에서 사용자는 더욱 유의해야 한다. 특히, 점검차원에서 회사에서 시행 중인 노동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과 조언을 받는 것도 좋다. 근로환경의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본다. /법무법인 바른

주파수 팔아 '방송' 지원하는 정부



기지 수첩
김 나 인 (사업부)

15일 차세대 네트워크 상용화의 초석이 될 5G 주파수 경매가 열린다. 최저 입찰액만 3조3000억에 달하는 통신 업계 '빅 이벤트'다. 정부가 경매를 진행하는 이유는 국가의 핵심 자원인 주파수에 할당된 대가를 받기 위해서다. 이동통신사들이 경매를 통해 입찰된 가격으로 사용 기간 동안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내면, 정부는 이를 세수로 확보할 수 있다. 공공재를 사용하는 만큼 일종의 세금을 받는 셈이다.

이동통신사업장에서는 경매가 지나치게 과열돼 경매대금이 치솟으면 과도한 비용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핵심 밑그림이 될 5G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5G 전국망 구축에 유리할 주파수를 확보하는데 사업자는 사활을 다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부가 겪은 주파수 할당 대가는 어떻게 쓰일까. 2011년부터 열린 3차례의 주파수 경매에서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받은 주파수 할당 대가는 모두 6조2410억원에 달한다. 이 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각각 55대45의 비율로 나눠서 귀속된다. 그러나 두 기금이 정작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 등 통신 소비자를 위해 사용된 비중은 지난해 전체 1조3797억원 중 1.8%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통신과 무관한 방송 콘텐츠 진흥 사업이나 미디어 다양성 사업 등 방송 콘텐츠나 정보통신기술(ICT) 지원 용도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재주는 이동사가 부리고 돈은 지상파가 끌어 모으고 있다"는 불만 목소리도 나온다.

주파수비용이 과다해지면 결과적으로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를 높여 비용을 충당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정부는 정작 주파수 대가를 소비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서 되레 사업자의 목만 조르고 있다.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 업체인 무디스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선택약정 할인을 상향, 보편요금제 추진 등 요금인하 정책으로 SK텔레콤은 2019년 영업이익이 반토막나고, KT는 41%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신용등급 추락의 '경고등'까지 켜진 셈이다.

이번 5G 주파수 경매의 최종 낙찰가가 4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주파수 할당대가가 통신서비스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가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시 들여다봐야 할 때다.

/silkni@metroseoul.co.kr



한국동서발전, 태양광 나눔협약 체결

한국동서발전은 '충남 태양광 나눔복지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동서발전이 충남지역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소를 기부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서발전을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 서부발전, 중부발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한국동서발전



NH농협은행, '블록체인 전문인력 특별과정 1기' 수료식

NH농협은행은 지난 12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동국대학교 경영관에서 'NH농협 블록체인 전문인력 특별과정 1기' 수료식을 개최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첫줄 왼쪽 여덟 번째부터) 김진선 동국대 경영대학원장, 이대훈 NH농협은행장, 이관제 동국대 부총장이 지난 12일 서울시 중구 소재 동국대학교 경영관에서 수료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NH농협은행



신한카드, 에어비앤비와 디지털 생태계 강화 제휴

신한카드가 에어비앤비와 디지털 플랫폼 연계, 마케팅 역량 공유, 신금융·신사업 발굴 협력 등을 포함하는 디지털 에코시스템 제휴를 국내 최초로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양사는 에어비앤비 호스트 지원 금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규 호스트 유치를 위해 협력하고, 신한카드 고객이 국내외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때 차별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공동 마케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가운데)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카드



오비맥주, 몽골서 '카스 희망의 숲' 봉사활동

오비맥주는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6월 17일)'을 맞아 국제 환경단체인 푸른아시아와 함께 몽골에서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비맥주 임직원, 푸른아시아 관계자, 몽골 대학생, 현지 주민으로 구성된 환경 봉사단 60여명은 지난 13일 예르든 숲 지역에 위치한 '카스 희망의 숲' 일대에서 조림활동을 펼쳤다. /오비맥주



롯데주류, 강릉단오제에 7000만원 후원

롯데주류가 14일 강릉에서 열리는 '강릉 단오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후원금 7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릉 단오제'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축제로 롯데주류는 강릉공장이 위치한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인 만큼 매년 후원금을 전달해왔다. 롯데주류 이준환 대표(왼쪽)와 강릉단오제위원회 조규돈 위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주류

인사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기획조정실장 김정환 △ 가치경영실장 김승일 △ 지식정보실장 서종국 △ 성과지원실장 최혜령 △ 창업사업화지원실장 이해령 △ 기술인증센터장 이종석 △ 국토인프라실장 김홍중 △ 도시건축실장 문주원 △ 철도실장 김성중 △ 교통물류실장 박남희 △ 항공실장 이은호 △ 기획1그룹장 정규원 △ 기획2그룹장 김윤순 △ 기획3그룹장 정시교 △ 기획4그룹장 이갑재 △ 기획5그룹장 최승욱 △ 기획6그룹장 박준우 △ 기획7그룹장 민성진 △ 기획8그룹장 백승훈 △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조대연 △ 감사실장 최봉림
- ◆홍극권 ◇ 신입 △ 준법감시인 겸 준법감시팀

장(상무) 윤준홍

부음

- ▲ 윤숙경 씨 별세, 이주영(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씨 장모상 = 13일 오후 2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연세병원 장례식장 302호, 발인 16일, 055-223-1000.
- ▲ 조홍래(전 연합뉴스 외신국장)씨 별세 = 14일 오전 2시38분, 서울 노원구 공릉동 원자력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발인 16일 오후 4시30분, 02-970-1543.
- ▲ 태범엽씨 별세, 태성훈(양주시청농기계지원팀장)·태성란(신안유치원 원장)·태성희씨 부친상, 정인철(무지개농원 대표)·조영익(금융감독원

국장)씨 장인상, 임예순씨 시부상 = 14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9호실(15일 오전 9시부터 1호실), 발인 16일 오전 6시30분 ☎02-2258-5940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중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이 장 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 9826
독자센터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397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 2017년3월09일 제0071호